

원주의과대학 의학회

이 승 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20대 의학회장

I. 의학회의 역사

학회는 1981년 원주의과 대학내에 의학과와 보건학과의 학과별로 학생장을 선출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모든 학생활동을 학도 호국단에서 주도한 관계로, 학회의 역할은 학도 호국단과 중복되었기에 그 활동이 부진하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 의학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족보 편찬, 의학과외의 밤 등을 주최하면서 그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1987년에는 후보자가 없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총대단에서 대신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988년 새 임원이 선출되면서 메니스커스(Meniscus)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1990년에 이르러 기존 활동 외에 면역학 만화집 편찬과 농활에 참여하면서 의학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에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을 족보와 메니스커스를 담당하는 학술부, 비디오 상영 및 각종 공연 등을 주관하는 문화부, 재활원 등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봉사부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1990년 후반 의학과외의 밤, 메니스커스, 의학

과 KMA 지원만을 하며 활동이 고착화 되었으나 2000년 부터는 족보 편찬 작업(산을 찾는 사람들 활동), 학생 Manual 편찬 작업 등이 부활되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은 의학회 활동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의학회는 이제 명실 상부히 학생들의 학술적인 정보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원주의과 대학의 학생 단위 대표자 기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학회를 운영하는 기본 예산은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학우가 각자 매학기 내게 되는 의학회비로 구성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II. 의학회의 활동

1. 의학과외의 밤

의학과외의 밤 행사의 목적은 의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의 벽을 조금이나마 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투표에 의해 기초의학과 임상의

학 교수 각 1명씩을 선발하는 행사로 올해의 교수상과 학생 논문상을 시상하며, 레크레이션이나 기타 동아리 공연 등의 문화 활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의학과와의 밤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담임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졸업 선배도 방문하는 Home-coming day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Meniscus

메니스커스는 본과 과정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제의 성격을 가진 사업입니다. 원주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하는 커리큘럼이 아닌 예과 과정 3학기, 본과 과정 9학기를 체계로 하기 때문에, 대개의 의과대학생들보다 1학기 먼저 본과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양 과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과 과정에서 본과로 넘어오게 되면 급작스럽게 바뀌는 수업 방식과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게 되곤 합니다. 본과로 진입하기 바로 전인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에 희망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해부학과 조직학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본과 선배들이 지도하여 보다 쉽게 본과 수업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메니스커스의 기본 목적입니다.

※ 2001 메니스커스 강의 계획 ※

조직학

상피 조직 2시간
 결합, 지방 조직 2시간
 연골, 뼈 조직 2시간
 근육 조직 2시간

해부학

introduction 1시간
 용어 정리 1시간
 Osteology
 skull 2시간
 팔, 다리 3시간
 vertebrae 2시간
 근육 1시간
 tendon 1시간

※ 2001 메니스커스 시간표 ※

	8월 6일 (월)	8월 7일 (화)	8월 8일 (수)
8 : 30 ~ 9 : 30	접수	해부학 실습 유의사항 및 출석체크	조직학
9 : 30 ~ 10 : 00	일정 설명, 강사진 소개, 개회식	Skull, Vertebrae 해부학 실습 및 해부학 Oral test	결합조직 & 지방조직
10 : 00 ~ 11 : 00	Introduction & Terminology		조직학
11 : 00 ~ 12 : 00	기념촬영 및 점심시간	점심시간	연골 & 뼈
12 : 00 ~ 13 : 30			점심시간
13 : 30 ~ 14 : 30	Skull	Upper & Lower limbs	점심시간
14 : 30 ~ 15 : 30			조직학
15 : 30 ~ 16 : 30	Vertebrae	조직학	근육 조직
16 : 30 ~ 17 : 30			상피 조직
17 : 30 ~ 19 : 00	저녁식사	저녁식사	Final Exam.
19 : 00 ~ 22 : 00	Review & Oral test	Review & Oral test	설문 조사, 채점, 시상

메니스커스는 1990년 이후로 의학회의 기본 활동 중 하나로 지속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본과 신입생 전원이 참여하여 선배들의 의지만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30명 가량의 신청자가 3일 동안 본과 과정의 일부분을 앞서 경험하게 됩니다. 메니스커스는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해부학과 조직학의 모든 점을 다 알고 나간 다기 보다는, 강의하며 동거동락하는 3학년 ~ 6학년 선배들에게서 해부학과 조직학의 총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앞으로 본과 생활의 가이드 라인을 잡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KMA 지원 및 6학년 졸업반지 제작

KMA 시험에 응시하는 6학년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KMA를 위한 숙소 예약과 교통편 확보, 숙소에서의 편의 환경 조성은 6학년 총대가 맡기에는 시험의 부담 때문에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후배로서 6학년 선배들의 파이팅을 위해 의학회 임원들이 KMA 숙소와 시험장에서 선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졸업 반지 제작은 원주의대를 사랑하고 6년간 학교를 이끌어오신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매년 의학회 예산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졸업 예배 시점에 맞추어 6학년 선배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4. Manual 및 족보 제작

의학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매뉴얼이나 기타 학습에 관련된 것을 제공합니다. 작년 투쟁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19대 의학회는 '산을 찾는 사람들'을 부활 시켰으며, 그 결과 20권의 족보를 제작하였습니다. 메니스커스가 본과 1학년을

위한 활동이라면, Manual과 족보 제작은 본과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 이해와 학업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5. 원주의과대학 동아리 연합회 지원 및 의학과 여학생회 지원

현재 의학과 여학생회는 의학회 산하기구로서 1998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학생대표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여학생회 대표는 기본적으로 의학회 임원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원주 의과대학 동아리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조절하고 학생회와 함께 학생 축제를 개최하는 단위 기구입니다. 의학회는 의학회비 예산의 일부분을 반영하여, 이들 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학회 참여활동

'의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심있는 학우들의 학회 참관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학회 파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 의과대학 학우들의 학문적 성숙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전문 의학 지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7. 문화 기능으로서의 의학회 활동 - 문화 게시판 운영

원주 시내의 4개 개봉관의 상영 프로와 치악 예술관 행사 안내, 기타 원주의 문화 행사 소개를 매주 게시판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과 대학생으로서의 학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우들의 문화적인 갈증도 해결하고 교양적인 측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의과 대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III. 의학회 활동의 장·단점과 참여도

의학회 활동의 장점은 일단 그 활동이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편, 교내 학생 자치 활동의 일부분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회가 학내의 복지 문제와 축제, 학생 총회 등의 활동이고, 동아리가 성원들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이라면 의학회는 학내의 학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편, 회원들간의 친목도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학회 활동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우들은 선배들과 잘 어울리는 동시에, 학술적인 부분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내의 단위 대표 기구의 하나로서 각 성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행사를 주관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장급 이상의 임원진은 행사를 담당할 때마다 아무래도 심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시험을 피해서 일정을 잡고 행사를 진행한다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적은 본과생으로서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사의 의도는 좋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행사의 답습으로 의학과외의 밤에 담임반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과거의 문제를 많이 시정한 메니스커스의 경우도 방학을 집이나 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후배들의 증가로 반 수 미만의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회 참관의 경우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학우들이 개인적인 시간 투자를 아깝게 여기는 것인지, 의학회 임원의 경우

가 아닌 일반 학우들의 참여가 적은 편입니다. 족보와 매뉴얼 작업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의 3년간의 공백기 때문이었는지, 문제 정리는 잘 되었는데 과거 문제에 답을 달지 못하고 출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족보 작업에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책을 내었는데, 일부 학우들로부터 받는 비판에 힘들어하는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족보 작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수정·확대해 가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또 앞으로 원주 의과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매뉴얼도 낼 수 있도록 현재의 매뉴얼의 개정 작업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V. 의학회의 바람

일단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비판이든 응원의 목소리든 의학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우들이 많을수록 의학회 활동이 더욱 생기고 새로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은 의학회만의 전용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내의 학생 자치 공간이 부족하여 동아리 방도 나누어 쓰는 형편이지만, 현재의 의학회의 경우는 아예 자치 공간이 할당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행사 준비를 할 때는 동아리 방을 빌려서 쓰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의 활동 지원이 좋은 편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의학회의 활동에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